



<당신은 범인이 아닙니다. >

[신상정보]

이름 : 오정성

나이 : 25세 / 남

특이사항 : 새롬의 남자친구.

새롬이 유튜버로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이다. 평범한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장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하지만 진짜 정체는 사귀는 여성들을 살해해온 연쇄살인범이다.

항상 사귀는 여자들은 자신의 컬렉션으로 잘 죽여서 기념품을 가지는 것으로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왔다.

새롬이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유튜버라는 것을 몰랐을 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따면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만나는 과정에서 싸움이 잦았다. 새롬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와 타로에 미쳐서 일만했고, 그에 비해 여유로운 정성은 새롬과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기 힘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였지만 새롬은 자신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했다.

오늘도 새롬은 자신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에 답도 없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바로 살인을 실행해야 하는 날이다.

전 여친들도 생일날 보내주지 않았던가? 흐흐... 연락이 없다면 내가 찾아가면 되는 법.

오늘 그녀를 내것으로 만들러 집으로 갔다.

[자기소개]

새롬아.... 새롬아... 흑흑.

저는 새롬이 남자친구 오정성입니다.

정말... 새롬이가 죽었나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리바이 정황소개]

저는 오늘 새롬이와 같이 하루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새롬이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새롬이랑 하루를 보내려고 찾아왔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8시 이후입니다.
그때 ... 아...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등장인물]

윤새롬 : 여친친구. 자주 다투었지만 정말로 좋아했다. 죽이고 싶을 만큼.
한호랑 : 한때 같이 타로 채널을 운영하던 친구로 안다. 잘은 모른다.
유수호 : 모르는 남자
곽편집 : 편집자인 것으로 안다.

[당일 타임라인]


오늘은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
새롬에게 오늘 가도 되냐고 연락을 해보았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7시 30분에 본인의 집을 출발했고 새롬의 집에 8시 이후에 도착했을 것 같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문은 닫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
방 안에는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새롬이가 쓰러져 있었다.
뭐지? 내가 처리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미 죽어있는건가? (실제로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했다.)
화가나서 준비해온 망치로 머리를 몇 대 갈겼다. 내것이 망쳐진 분노 때문에 걸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 앞에 모르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정성은 자신이 시체를 손괴하고 있는 장면을 들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지난 여친들의 살인까지 들키면 안되니까.
그러나 문 앞에서 본 낯선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 1> 새롬은 생방송이 있는 날에는 낮에부터 쪽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 2> 새롬이가 오늘은 무슨 합방이니 뭐니 한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 3> 현관 비번 1234인 것과 새롬의 휴대폰 비번이 5678인걸 알고 있다.

[당신의 증거들]

1> 새롬과의 문자	10월 3일
	정성 : 새롬아. 이번주말에는 시간 있어?
	새롬 : 아 미안해 내가 바빠서

	<p>10월 20일</p> <p>정성 : 새롬아. 시간있어?</p> <p>-10시간뒤</p> <p>새롬 : 아 정말 미안해 오빠. 지금 문자 봤어 왜?</p> <p>정성 : 아냐... 됐어. 중요한 일 아냐.</p> <p>11월 11일</p> <p>정성 : 새롬아.</p> <p>새롬 : 웬 왜?</p> <p>정성 : 오늘은 시간이 돼?</p> <p>새롬 : 음... 오빠 오늘 저녁은 예약스케줄 있어서 새벽에 시간 되 는덴</p> <p>정성 : 아... 그럼... 일요일은?</p> <p>새롬 : 일요일 오전에 돼.</p> <p>12월 2일</p> <p>정성 : 새롬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11시)</p> <p>정성 : 새롬아 대답 좀 해 줘. (11시 30분)</p> <p>정성 : 새롬아? 아직 자니?(3시)</p>
2> 달력 : 곧 새 롬의 생일이다.	
3> 도시락 : 피 해자에게 주려고 싸온 도시락이다 .	

	
<p>4> 신체검사 : 정성의 옷과 손 이 피투성이다</p>	
<p>5> 망치 : 피가 흐건하게 묻어있 다. (이 망치로 죽어 있는 새롬의 머 리를 몇 번이고 내리쳤다.)</p>	

	
6> 증언	애가 기계치라서 항상 보면 휴대폰도 제대로 못다뤄여~ 이런이런. ..
7> 일기	2018년 1월 그녀가 떠났다.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씁히고, 나만 매달리는 것 같다. 나만 목매는 연애는 이제 하기 싫다. 그럴 바에는 죽이는게 낫다. 영원히 내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8> 집안 : 표르 말린 표본	표르말린 용액이 담긴 병에는 반지를 낀 손가락이 하나씩 들어있다. 모두 똑같은 여성용 반지다.